

지방 자치 단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 대구시청 소속 통번역사 사례연구

김희란 · 이지민*
(계명대)

1. 서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 산업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주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각 지자체는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8개 광역시 및 9개 도에서는 국제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통번역사를 고용해 국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 전문 통번역사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자체 통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통번역학에서 통번역 결과물이 아닌 주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역사가 매우 짧고, 그나마도 주로 전문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 교신저자

있을 것이다. 통번역학계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번역사에 관한 직업적 분류는 통번역 전문 교육을 받은 후 회사에 고용되어 통번역을 전담하는 인하우스(in-house) 통번역사와 프리랜서의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통번역사의 경우 통번역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¹⁾, 통번역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부서에서 전문 분야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통번역사들을 기존 잣대로 분류하기는 다소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 통번역사들은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채용되고, 통번역대학원 출신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지자체 통번역사를 주목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연구가 매우 미비한 지자체 통번역사 중 대구시청 소속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할과 가시성을 포함한 지위 및 정체성을 조직 내 자료 분석, 자문화기술지, 심층 면접 등의 질적 연구방법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주체로서의 통번역사 연구

체스터만(Chesterman 2009) 등이 번역사 연구(translator studies)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부터 번역학에서 연구의 관점이 통번역물이 아닌 통번역 주체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통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광중철(2004), 고영민(2004), 코스키넨(Koskinen 2008), 카탄(Katan 2009a, 2009b), 담과 제첸(Dam & Zethsen 2011, 2012), 김종희(2013), 루오코넨(Ruokonen 2013), 홍정민(2014), 김현정(2014, 2015), 박지영(2016), 이지은(2017) 등이 있다. 담과 제첸(Dam & Zethsen 2011, 2012)의 경우 덴마크 기업, 에이전시 소속 통번역사, 프리랜서 통번역사 및 EU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코스키넨(Koskinen, 2008)은 EU 집행위원회 통번역국에

1)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통번역만 전담하는 지자체 통번역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국제교류, 투자통상, 개별 산업 등 고유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자체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서 근무하는 핀란드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상을 세부 분야로 확장해 통번역 비전공자 출신 통번역사(곽중철 2004),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전공자 인하우스 통번역사(박지영 2016),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김중희 2013), 부산광역시 통번역사(김현정 2015), 병원, 경찰서, 법원,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고영민 2004), 사법 통번역사(이지은 2017), 언론사 소속 통번역사(홍정민 201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국내 지자체 통역사에 관련된 연구는 김중희(2013), 김현정(2015) 등이 있으나 이들은 수행 업무로만 연구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과 부산 지자체의 통역사는 통번역만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관련 일반 업무도 수행하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 통역사와는 차이가 있다.

통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지위, 보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 통번역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그리고 통번역사들이 작성한 에세이, 인터뷰, 역사후기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Chesterman 2009). 이 중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지위, 보수, 정체성, 작업환경 등에 관한 연구로는 담과 제첸(Dam & Zethsen 2011, 2012), 코스키넨(Koskinen 2008), 카탄(Katan 2009a, 2009b), 루오코넨(Ruokonen 2013), 홍정민(2014), 이지은(2017) 등의 연구가 있다. 기업, 에이전시 소속 통번역사, 프리랜서 및 EU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Dam & Zethsen 2011, 2012)는 보수, 교육과 전문지식, 권력과 영향력 및 가시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해 이들의 직업적 지위를 비교 분석했고, EU 내 핀란드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oskinen 2008)는 동일한 환경에서 실제 통번역사로 근무했던 연구자가 통번역사의 지위, 동료와의 관계 및 정체성 등을 분석하였다. 홍정민(2014)은 한국 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교육 및 전문지식, 가시성, 영향력, 보수, 정체성 및 지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지은(2017)은 제도 번역사 중 사법 통번역사들의 지위를 연구하며 기관별 통역료를 지위 평가 잣대로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활용된 통번역사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민족지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중희 2015)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통번역사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그 업무를 통해 보람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설문조사나 심층면담 뿐 아니라 통역사의 업무일지를

분석함으로써 통역사들의 업무를 파악한 연구(김현정 2015)도 있다. 통번역자 일지를 분석하는 것은 민족지학적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도 이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적 연구 방법의 한 형식으로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또는 Ethnographic Bioautography)를 사용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는 사회학적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저자/연구자의 경험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Sparkes 2000: 21). 즉, 연구자 자신을 활용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며(Pelias 2003: 372), 연구자가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문화, 정치 및 사회적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는 방법이다(Ellis 2004). 이 방법은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사용되기도 한다(Hayano 1979). 따라서 조직에 소속된 통번역사가 자신의 일지를 분석하는 것도 자문화기술지의 한 방법이다.

2.2 가시성

통번역사의 지위 파악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들의 가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시성 문제는 로렌스 베누티(Venuti 1995/2008)가 『번역사의 비가시성: 번역의 역사』(*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에서 그동안의 번역의 자국화 관습과 가독성을 선호하는 출판사 및 도착언어의 독자들의 선호도에 의해 번역사의 비가시성이 당연시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었다. 번역사의 가시성은 번역된 텍스트 상에 번역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텍스트적 가시성(textual visibility), 번역서 표지에 표기된 번역자명(名), 번역사의 역할, 주석이나 각주 등과 같이 번역본 주변이나 외부에서 관찰되는 번역사의 가시성을 의미하는 곁텍스트적 가시성(paratextual visibility), 그리고 번역된 텍스트가 아닌 번역사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텍스트외적 가시성(extratextual vi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Koskinen 2000: 99).

이 중 곁텍스트적 가시성은 표지에 나타난 번역사명, 주석, 각주 뿐 아니라 번역사 후기나(전현주 2009) 번역사와의 신문·잡지 인터뷰, 수상 수감 등 번역서의 후텍스트 분석(유한내 2013), 번역사의 번역 전략을 밝히는 서문 분석(Chesterman & Wagner 2002)을 통해 연구된 바 있다.

텍스트외적 가시성은 통번역사의 물리적 위치와 통역사 간, 그리고 통역사와

기타 조직 내 주체와의 상호관계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홍정민(2014)은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번역사를 대상으로 기자 등 다른 국제뉴스 생산 주체와의 의사소통과 근무형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시성을 살펴본 결과, 번역사는 기자에 비해 언론사 조직 내 다른 국제 뉴스 생산 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이 많지 않고 채택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테스트 외적 가시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담과 체첸(Dam & Zethsen 2011, 2012)도 사내에서 통번역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 위치를 가시성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하였고, 코스키넨(Koskinen 2008)도 EU 번역국 내의 통번역사들이 그 수적 강세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의 다른 직원들과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이들과의 상호관계가 적어 조직 내에서 가시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3 정체성

정체성(identity)은 정신분석적 개념을 심리사회적으로 확장하여 개인 안에 지속적인 동일성이 존재하고 동시에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타인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rikson 1956).

통번역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제도권 내에서 다른 직원과의 상호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본인의 위치, 그리고 통번역사의 충성도가 향하는 곳(Koskinen 2008) 등을 의미하며, 통번역사 본인과 본인의 업무 가치 및 방향성을 확립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통번역사는 두 개의 언어 및 문화권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Chesterman & Wagner 2002).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접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통번역사는 개인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Koskinen 2008: 45). EU 집행위원회 번역국의 통번역사를 예로 들면, 이들은 EU 집행위원회라는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핀란드나 덴마크 등 자신의 국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을 매일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고용한 EU와 자신이 속한 회원국 간 상충된 충성도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Koskinen 2008: 45).

통번역사의 정체성은 기관 내 물리적 근무 위치의 영향도 받는다. EU의 경

우 통번역사들이 집행위원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브뤼셀 시내의 별도 건물에서 번역 업무를 한다. 또한 24개 언어별로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언어 통역사들끼리 한 공간에 모여 근무한다. 그리하여 통번역 관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관련 언어 통번역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어 통번역사들과도 고립되어 근무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자신을 다른 언어 통번역사들이나 동료 EU 직원들과도 다른 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끊임없이 재협상하고 두 개의 상충된 논리에 저항하게 된다(Koskinen 2008: 118). 국내 통번역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언론사 뉴스 번역사들은 기자들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며 기관 내에서 소외되어 조직 내 번역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홍정민 2014).

3. 연구 대상 및 방법

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구광역시라는 지자체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지자체 통번역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지자체 조직 내에서 통번역사의 지위는 어떠한가?
3. 지자체 조직 내에서 통번역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통번역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지자체 통번역사들의 통번역 전공 여부, 업무 분장, 실제 업무 등을 분석했다. 둘째, 통번역사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번역사의 보수와 조직 내외 가시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공시 급여, 물리적 위치, 조직 내 타 주체와의 상호작용 분석을 활용했다. 셋째, 통번역사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서는 자문화기술지 방식을 적용해 본 연구자의 일지를 분석한 후 통역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본 연구자는 2001년 9월부터 대구시 영어 및 러시아어권 국제교류를 담당 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의 영어 통역 및 대구시 주요 공식 문서 및 홍보 문서 번역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통번역사로 일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노어노문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한 뒤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수료했다. 통번역을 전문으로 배우고 입사한 사례는 아니었으며 2017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통번역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본 연구자는 지난 16년 동안 지자체 통번역사로서 일하면서 지자체 통번역사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내에서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및 정체성을 기술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2016년 당시 근무하던 한, 중, 일 통역을 담당하는 대구시 소속 통역사 11명(본 연구자 포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이들의 통번역 전공 유무를 분석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통해 통번역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하였고, 부서 내 사무분장표, 보수 지침 등 기관 내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지위 부분을 살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가 2016년 1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 간 130쪽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일지는 매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와 다른 통번역사 또는 직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 7개월 간의 기록을 분석해 대구시 통번역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알아보고, 통번역사의 가시성, 동료 직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나타난 통번역사의 정체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의 근무일지는 근거이론분석(grounded theory)¹⁾을 활용해 분석했다. 근거이론분석의 코딩 절차에 따라 먼저 자료를 덩어리로 쪼개서 개념 범주로 나누는 ‘개방 코딩’(opening coding)을 실시하고, 이 범주 간 상관관계를 ‘축 코딩’(axial coding)으로 분류한 뒤, 이러한 관계를 상위단계의 추상적 개념으로 ‘선별코딩’(selective coding) 했다(Strauss & Corbin 1990: 110-118).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근무일지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내용별로 크게 분류하고 여기에 핵심 내용을 각 자료 범주 앞에 적었다. 축코딩

1) Strauss & Corbin(1990)이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에서 사용한 용어

단계에서는 나뉜 범주 간 관계와 그 속에서 이루어진 동료 간 상관관계가 암시하거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선별 코딩 단계에서는 지자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가시성 및 정체성이라는 핵심 범주를 선별해 내부자 관점에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료 통번역사 6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각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고, 보충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2차 면담을 가졌다.

4. 분석 결과

4.1 통번역사의 역할

그림 1과 같이 대구시 인사과에서 공고한 국제교류분야(영어)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자격기준에 통번역을 전공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으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제교류라는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통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대구광역시 국제교류분야(영어) 채용공고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국제교류분야 (지방행정주사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 국제통상, 전시컨벤션분야, 영어통번역 등의 실무경력 * 면접시 영어 구술테스트 실시(가산점 부여)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특별요건 : 제2외국어(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 1) 어학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된 통번역사는 해당 부서에 배치된 후 팀별로 업무 분장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 지침을 받는다.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도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팀 통번역사 사무분장표에는 영어통역사(표 내 'B'로 표기)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 계획 수립부터 영어권·러시아어권 지역과 교류협력, 주한 외교공관과의 업무, 글로벌도시위원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영어·러시아어권 통번역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중국어 통역사('C')는 중국 및 대만과의 교류, 화교축제 등 민간 교류 지원, 자매도시의 날 행사 주최를 담당하면서 관련 중국어 통번역을 한다. 일본어 통역사('D')의 경우도 일본교류 업무 외에도 민간 교류를 지원하며, 대학생 캠프 행사, 팀 서무 역할까지 하면서 일본어 통번역 업무를 맡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팀 사무분장표 (2016. 4. 1기준)

직 위(급)	성 명	분 장 사 무
행정5급	A	- 국제교류업무 전반
임기제(7급)	B	- 국제교류 업무계획 수립 - 영어권, 러시아어권 등 기타지역 교류협력 전반 - 주한 외교공관 업무(영어권) - 영어, 러시아 통·번역 지원 - 글로벌도시위원회 운영
"	C	- 중국, 대만 교류협력 업무 전반 - 자매도시의 날 행사 추진 - 화교축제 및 중국관련 민간단체 지원 - 중국어 통·번역 지원
임기제(8급)	D	- 일본 교류협력 업무 전반 - 대구국제대학생캠프 추진 - 일본관련 민간단체 지원 - 일본어 통·번역 지원 - 팀 서무 관련 업무

이렇게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더욱 다양하고 폭넓다. 본 연구자의 근무일지를 업무별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분장 사무에 나온 업무 그 이상을 실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빈 방문 준비>

인도대사의 시장님 예방 요청 관련 보고서 만들어 팀장께 보고 드리고 수정해 주신 내용으로 비서실에 넣고 시장님께 보고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님과 외빈 면담 주선**/ 연구자 근무일지, 2016.1.28.)

대사 면담 시 참고자료랑 시장님 말씀요지도 만들어 협력관께 보여드리고 비서실에 넣었어. (**외빈 면담 시 시장님 말씀요지 및 참고자료 작성**/ 연구자 근무일지, 2016.3.7.)

우치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하는 의향서를 땀다. 3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아침에 상황실 내려가서 책상 배치하고 (중략) 수목원에 요청한 분재 배치되는 것까지 확인...선물 준비해 두고 전체 선물까지 확인. (**외국 도시와 협정서 체결 제반 업무**/ 연구자 근무일지, 2016.4.29.)

<국제교류 자문 및 자료조사>

창조프로젝트 추진단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하천 정비 관련 3개 시 방문과 관련하여 현지 공관을 통한 협조요청 방법을 설명해줬다. (**국제교류 방법 자문**/ 연구자 근무일지, 2016.1.25.)

국제관계대사께서 이란대사를 만나 오찬 회동 후 이란 카즈빈시와 자매결연 제안 받아오셨다. 카즈빈시를 조사해보기... (**해외 도시 및 기관 자료 조사**/ 연구자 근무일지, 2016.1.29.)

<국제행사에 단체장 수행>

미리 행사장 확인하고 행정부시장님 도착하셔서 자리에 모시고 아르헨티나 부통령께 선물 드리게 챙겨드리고 틈틈이 사진 찍어 드리고... (타기관 의 외빈과의 행사에 부시장 수행/ 연구자 근무일지, 2016.5.9.)

<유학생 인턴십 운영>

2014년에 인턴으로 일했던 영국 학생이 요청한 추천서를 작성했어. (**해외 유학생 인턴십 운영 및 후속관리**/ 연구자 근무일지, 2016.2.15.)

<회계 업무>

2015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전자서류 확인해서 알려줬고... (**보조금 등 회계업무**/ 연구자 근무일지, 2016.2.26.)

오늘 통역비 중 소득세 떼고 지출하는 건으로 지출서류를 다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고 한바탕 난리...회계는 쉽지가 않아요. (담당업무에 수반되는 회계업무 처리/ 연구자 근무일지, 2016.3.7.)

<민원 처리>

외국인 학원 강사가 전화 와서 자기 고용주와의 불화를 해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 외국인 민원 처리/ 연구자 근무일지, 2016.5.25.)

위 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빈 일정, 숙소 예약, 오만찬, 면담 및 행사, 관련 인사말씀 등의 제반 방문 준비, 국제교류 자문 및 자료 조사, 국제행사 시 단체장 수행 통역, 유학생 인턴십 제도 운영부터 담당 업무에 수반되는 회계 업무, 민원 처리까지 지자체 통번역사는 통번역 외에 다른 업무의 폭이 상당히 넓다.

4.2 통번역사의 지위

4.2.1 직급 및 보수

대구시 통번역사는 전문 통번역 교육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 실제로 대구시청 내 11명의 통번역사 중 통번역대학원을 나온 통역사는 2017년 4월 현재 한 명에 불과하다. 통번역사들은 입사하면 7급 상당의 직급을 부여받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사 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수년 간 근무한 후에야 시청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9급에서 시작한 공무원은 십여 년이 지나야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번역사의 직급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 통번역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일반 공무원들의 호봉제와는 달리 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보수는 하한선에서부터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통번역사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인사과와 협상을 통해 정한다.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보수체계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체계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나뉜다. 여기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대다수 임기제 공무원들이 속하는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 연봉액만 살펴본다. 통번역사마다 연봉은 연봉 협상력, 경력, 연간 성과등급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 정보이므로 다른 통번역사의 연봉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해당 급의 상·하한액은 확인할 수 있다.

<표 1> 임기제 공무원 연봉액²⁾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

본 연구자는 7급 상당으로 본인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 임금체계와 비교했다. 아래 <표 2>에서 연구자의 본봉은 일반직 4급(과장급) 16호봉과 17호봉 사이, 3급(국장급) 10호봉과 11호봉 사이, 2급(이사관급) 7호봉과 8호봉 사이, 1급(부시장급)의 4호봉에서 5호봉에 해당한다. 본봉만을 살펴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통번역사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급 및 각종 명절 지원비 등이 해당 월마다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총임금은 아래 임금체계 보다 높아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다.

2)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2017.2.1.)

〈표 2〉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체계³⁾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심층면담 결과도 통번역사들이 대부분 본인의 보수에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근무한지 오래된 통번역사의 경우, 보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통번역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입사한 지 3년 미만의 통번역사의 경우, 또래나 근무 여건 대비 현재 보수에 만족하는 편이나, 업무 가중도라든지 책임감, 재고용 시 급여의 재산정⁴⁾에 대해 고민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통번역 전공자의 경우 그동안 통역 공부에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급여가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2017.2.1)
 4) 입사 5년이 지나면 공개채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다시 임해 재고용에 성공하여도 5년 전의 직급과 월급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

이 결과는 보수를 한 지표로 덴마크 통번역사의 지위를 살펴 본 담과 제첸(2011)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덴마크 통번역사들도 본인들의 월급 수준에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근무 경험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직장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보여 대구시 통번역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2.2. 가시성

지자체 번역물의 경우 대체로 텍스트적 가시성이나 결텍스트적 가시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예는 본 연구자의 근무일지 내용으로 조직 외부에 제공되는 문서에 나타난 번역사의 비가시성을 나타낸다. 지자체 통번역사가 대구시를 소개하기 위해 주어진 주제로 관련 자료를 목표로 번역해 자료를 작성했지만, 실제 발표하는 사람은 번역사가 아닌 관리자급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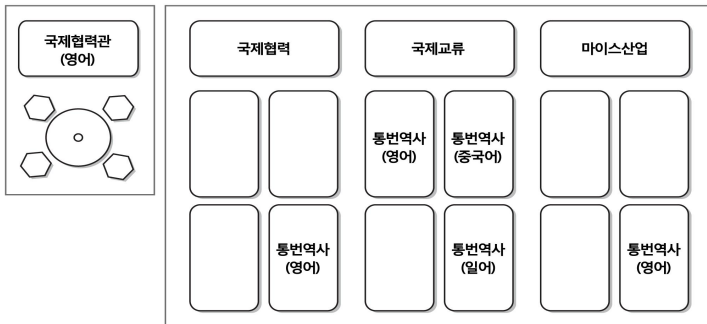
국제협력관과 주한 인도대사관을 방문해 인도 대사께 대구 소개 PT를 했어. 대사가 이 자료가 정보도 다양하게 잘 담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셨지. 자료는 내가 만들었는데 협력관은 듣고 고맙다고만 하시고 **옆에 있는 내가 만들었다고는 얘기 안 하시더군.** (연구자 근무일지, 2016.3.3.)

해당 문서에 통번역사의 텍스트적·결텍스트적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통번역사가 동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가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외적 가시성은 물리적 근무 위치와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 위치를 설명하자면, 그림 3에서 보듯이 대구시 통번역사는 각 해당 부서에서 동료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 통번역사들이 별도 장소에 따로 모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급에 따라서 해당 팀 내에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급 순서대로 배치되어 근무한다. 국제협력, 국제교류, 마이스산업 세 개 부서가 있는 국제협력관실의 경우 통번역사들은 팀별 혹은 과 행사 개최 시 다른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를 나눠 협업해서 일하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통번역사로서의 가시성

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대구시 국제협력관실 내 통번역사 배치도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을 통해서도 통번역사의 텍스트외적 가시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팀원이 통번역사에게 통번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팀장 이상의 상급 계급의 공무원이 직접 통번역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는 본 연구자의 근무일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고용노동과 기능봉사 담당 **팀장이 전화와서** 기능봉사단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연구자 근무일지, 2016.1.29.)

기계자동차**과장님**이 전화하셔서 같은 날 오전 경제부시장님을 만나러 오는 리용 로봇 관계자들이 있다고 **통역을 해달라신다**. (연구자 근무일지, 2016.4.5.)

홍**국장님**이 알마티 방문한다고 알마티 시청과 고려인협회를 방문해야하지 않겠냐며 **직접 전화하셨네**. (연구자 근무일지, 2016.5.7.)

위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팀장, 과장, 국장 등 고위급이 통번역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업무를 의뢰한다. 물론 담당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도 단순 요청하지 않고 유선 상으로 미리 설명해 통번역사와 사전협의의 한

다. 이렇게 업무가 수행되는 이유는 통번역이라는 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해 조직 내에서 다른 대체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구시청 내에서의 통번역사의 지위는 높다 할 수 있다. 이는 홍정민(2014)이 연구한 언론기관 내 번역자의 지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EU 번역국의 통번역사들은 물리적으로 일반 직원들과 다른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EU 내에서 EU 통번역사들의 가시성이 낮다는 코스키넨(2008) 분석과도 다른 결과를 보인다. 국내 지자체 통번역사는 물리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있으며 다른 동료와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통번역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능함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텍스트외적 가시성을 지닌다.

4.3 정체성

대구시는 외국어 통번역사를 국제업무가 필요한 부서 각각에 배치하여 국제교류, 컨벤션, 투자유치 등 전문 분야의 실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 운영 효율성과 통번역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의 전략 산업에 따라 투자통상과, 물산업과, 의료허브조성과, 2017 실내마스터즈대회, 공항정책과에서도 별도 필요에 따라 영어, 일어 또는 중국어 통번역사를 선발했다. 해당 부서에서 선발된 통번역사들은 그 분야 업무를 실제로 맡으면서 필요 시 해당언어로 통번역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 통역에 있어서도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담당 통번역사가 통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통번역사들은 자연스럽게 해당부서 내 다른 동료 직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부서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통번역 일이 아닌 경우에도 협업한다. 그러다 보니 통번역사들은 자신을 통번역사라는 특수한 정체성보다는 일반 공무원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대구시 통번역사들은 자신을 통번역만 전담하는 통번역사라고 여기기보다는 각자 고유 업무 및 행정업무도 병행할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 A: 지금은 **투자유치하면서** 좋은 기업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 기여하고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유치한 기업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 **뿌듯하지**. (1차 면담, 2017.4.12.)

연구 참가자 B: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대한민국국제물주간 중에 세계물 도시포럼인데 이거 **기획**하면서 해외 참가자 다 **초청**하고, 행사 치루고 거기에 필요한 **통번역**하면서 (중략) 힘은 들었지만 하고 나니 **너무 보람이 많**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1차 면담, 2017.4.12.)

연구 참가자 A는 투자유치에 수반되는 통번역도 하지만 투자유치를 통해 해외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리고 연구 참가자 B도 자기가 기획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나 통번역사들은 통번역 업무뿐만 아니라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구시 통번역사는 조직 충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충성도는 통번역사의 장기 근속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통번역사 직은 5년마다 공개채용을 하며, 기존 통번역사도 다른 경쟁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공개 채용에 응시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 통번역사 11명 중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4명으로 36.3%에 이른다.

통번역사와 일반직 직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번역사들은 자신을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군으로서 여기기보다는 다른 직원들과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해주고 힘이 필요한 일은 격려해주는 관계로 여기는 경향이 보인다. 아래는 근무일지 중 일반 공무원과의 평소 관계에 대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였다.

시장 비서실 000 비서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 드리고 **금요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 잡았다. (연구자 근무일지, 2016.1.25.)

설연휴 명절을 앞두고 얼마 전 불이 난 팔달시장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사 들고 장보러 가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중략) **동료들과** 뜨끈한 어묵도 사 먹고 장거리도 사고 **부시장님이 단감도 사주셨다**. (연구자 근무일지, 2016.2.1.)

창조경제포럼에 자매도시 초청해서 (중략) 요즈마회장 왔을 때 협약식 사회도 봐줬더니 일본어 통역사랑 같이 첨단산업과 담당 직원이 점심을 사주시네. **도와줘서 고맙다고.** (연구자 근무일지, 2016.7.12.)

관광과 김주임님이 전화왔네. 무슨 상의할 행사가 있나 했더니 내 자리 채용공고났다고 **파이팅하라고 전화주셨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듯.** (중략) **내가 대구에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연구자 근무일지, 2016.8.12.)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자는 통번역사가 아닌 일반 직원도 ‘동료’라고 칭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도 통번역사를 동료로 여기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번역사들은 자신의 고용조건이 임기제, 즉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처지라고 느끼기도 한다. 심층면접 대상의 답변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통번역사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점(연구 참가자 C 1차 면담, 2017.4.10. ; 연구 참가자 D 1차 면담, 2017.4.10.), 장기 교육이나 해외 연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점(연구 참가자 A 1차 면담, 2017.4.12.), 이미 ‘전문가’라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학원 학비 지원이 안 되는 점(연구 참가자 C 1차 면담, 2017.4.10.), 육아휴직이 없다는 점(연구 참가자 B 1차 면담, 2017.4.12.),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점(연구 참가자 E 1차 면담, 2017.4.11.),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연구 참가자 D 1차 면담, 2017.4.10.) 등을 고려할 때 통번역사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자신이 다른 중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통번역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체성을 살펴보면, 언어 별로 함께 모여 있으며 실무자들과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EU 통번역사들과는 달리 대구시는 통번역사가 일반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는 구조이므로 동일한 언어 통역사라 하더라도 같은 팀이 아니면 교류가 많거나 연대감이 강하진 않았다.

또한 통번역 비전공자 통번역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이 통번역사와 일반 공무원 역할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통번역을 업무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통번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도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저 자신을 일본어 통역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일본 교류 담당자라고 말해요. (연구 참가자 C 2차 면담, 2017.4.14.)

명함 내밀 때 중국교류 담당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시장님, 부시장님 보좌하는 수행 통역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통번역 업무도 꽤 많고, 저희 자체 업무뿐만 아니라 타과 업무 지원도 많으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을 모르고 통번역만 한다면 전문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을 것 같아요. (연구 참가자 D 2차 면담, 2017.4.14.)

저는 통번역만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ODA 사업에 관심이 더 많고 더 재밌어요. (연구 참가자 E 1차 면담, 2017.4.13.)

위 세 명의 연구 참가자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번역 비전공 통번역사들은 본인을 통번역사인 동시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하여 통번역 전공 통번역사의 의견도 확인했다.

내가 통번역사다라는 생각, 너무 그 생각이 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절반 절반이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 공무원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일을 하려면 그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과 인간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도 두루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가자 B 1차 면담, 2017.4.12.)

위와 같이 통번역 전공 통번역사는 본인은 전문 통번역사이나 그 생각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다른 공무원과 조화롭게 어울려 지낼 수 없으니 행정업무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본인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통번역사들은 업무 특성상 자신을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통번역 업무도 하는 그런 이중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고를 통해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시청 내 문건, 물리적 자리 배치 분석 외에도 본 연구자가 대구시 통번역사 일원으로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간 작성한 근무 일지를 분석하였고, 추가로 6명의 동료 통번역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역할과 관련해, 대구시 통번역사는 통번역 외에도 국제교류, 투자유치, 물산업, 컨벤션, 의료관광, 국제체육대회 등 소속 부서의 고유 업무 및 행정업무를 병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위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가시성을 살펴보았는데, 통번역사의 보수는 중견 공무원에서부터 고위 공무원 수준에 해당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사들 또한 비전공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보수에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통번역 전공자의 경우 본인이 공부했던 노력과 전문성에 비해 현재보다 조금 더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업무 가중도나 책임감에 비해 보수가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가시성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발간하는 번역물에서 번역사의 텍스트적 및 결텍스트적 가시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텍스트외적 가시성은 조직 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사들이 물리적으로 고립된 곳이 아닌 각 부서에 소속되어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통번역이 필요한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직접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통번역사의 정체성은 통역사의 물리적 근무위치, 동료와의 관계, 업무를 통한 충성도 등을 통해 분석했는데, 통번역사는 물리적으로 각 업무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통번역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대구시 공무원으로서의 충성심이 높았다. 또한, 동료 직원들과 상호 업무 협조를 주고받고 친분을 쌓음으로써 통번역사로서의 별개의 직군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동료로서 인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통번역사와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통번역사들의 장기 근속에도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계약직 신분으로서 동료 정규직 직원들과 신분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시 통번역사들은 그 특성상 통번역사일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도 수행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연구는 통번역 업무만 담당하는 서울과 부산과는 차이가 있는 기타 지자체 내의 통번역사의 근무 환경, 이들의 지위 및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통번역 주체에 대한 연구를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조직에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연구자가 실제 해당 조직에서 통번역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청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까지도 파악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근무일지를 기록하기 전에 관찰하고자 하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근무일지 분량에 비해 가시성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중앙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분석을 통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5(1): 5-24.
- 곽중철 (2004) 「자수성가형 통역사 통역에 관한 소고」,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8: 1-38.
- 김중희 (2013) 「국내 인하우스(in-house) 통번역사 실태 조사연구」, 『일본어교육』 65: 17-30.
- 김중희 (2015) 「인하우스(in-house) 통번역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일어일문학』 65: 111-127.
- 김현정 (2014) 「문화관련 홍보 텍스트의 번역전략 연구 - 전문 번역사 심층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2: 41-66.
- 김현정 (2015)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내용 분석 연구 - 부산광역시 통번역사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7: 27-43.
- 박지영 (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 분석 - 통번역 비전공

- 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127-152.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이지은 (2017) 『사법 통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홍정민 (2014) 「한국 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기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6(1): 253-294.
- Chesterman, A.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42:13-22.
- Chesterman, A. & Wagner, E. (2009) 『번역사와 번역학[Can theory help translator?』, 정연일과 남원준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2002에 출판)
- Dam, H. V. & Zethsen, K. K. (2011). 'The Status of Professional Business Translators on the Danish Market: A Comparative Study of Company, Agency and Freelance Translators', *META* 56(4): 976-997.
- Dam, H. V. & Zethsen, K. K. (2012) 'Translato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Special Breed of High-status Professionals? Danish EU Translators as a Case in Poin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211-232.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APA* 4: 56-121.
-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Ellingson, L. L. & Ellis, C. (2008) 'Autoethnography as Constructionist Project', In J. A. Holstein & J. F. Gubrum (eds.), *Handbook of Constructionist Research*, New York: Gilford Press, 445-466.
- Goldschmidt, W. (1977) 'Anthropology and the Coming Crisis: An Autoethnographic Appraisal', *Anthropologist* 79(2): 293-308.
- Hayano, D. M. (1979) 'Auto-Ethnography: Paradigms, Problems, and Prospects', *Human Organization* 38(1): 99-104.

- Katan, D. (2009a) 'Occupation or Profession: A Study of the Translators' Worl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4): 187-209.
- Katan, D. (2009b) 'Translation Theory and Professional Practice: A Global Survey of the Great Divide', *Hermes-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42: 111-154.
- Koskinen, K. (2000). 'Beyond Ambivalence: Postmodernity and the Ethics of Translation',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 Koskinen, K.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 An Ethnographic Study of EU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Parry, K. & Boyle, M. (2009). 'Organizational Autoethnography'. In D. A. Buchanan and A. Bryman(eds.),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690-702.
- Pelias, R. J. (2003). 'The Academic Tourist: An Autoethnography,' *Qualitative Inquiry* 9(3): 369-373.
- Ruokonen, M. (2013). 'Studying Translator Status: Three Points of View', *VAKKI Publications* 2: 327-338.
- Sparks, A. C. (2000). 'Autoethnography and Narratives of Self: Reflections on Criteria in Action',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1): 21-43.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Sage.
- Tyulenev, S.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 Venuti, L. (1995/200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 Study on the Roles, Status and Identity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Kim Hoeran · Lee Jimi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status and identity of a Korean local government'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Their rol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job descriptions and the daily log by the researcher, one of the interpreters/translators of the Daegu city gover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ir professional status in the institution, their income was compared to that of general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ir visibility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extual, paratextual and extratextual visibility. Their identity was defined based on their loyalty and their physical working loca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six of the interprete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to triangulate the study. Local government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orkscope turned out to be beyon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ir income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coworkers. Visibility-wise, their textual and paratextual visibility was low whereas extratextual visibility was high. Lastly, their close daily interactions with other general officials and high loyalty toward the city government made them have a very strong identity as a me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horizon of institutional studies on Korean local government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by providing baseline data and in-depth analyses. However,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ill be further needed in the future.

▶ Key Words: autoethnography, roles, status, identity, local government interpreters/translators

▶ 주제어: 자문화기술지, 역할, 지위, 정체성, 지방자치단체 통번역사

김희란

대구광역시청 국제교류주무관

ralran@hanmail.net

관심분야: 제도번역, 기계번역, 통번역사의 미래

이지민

계명대학교 조교수

ke9836@hanmail.net

관심분야: 제도번역, 네티즌 번역, 영상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